

#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탐색

-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lated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Coping Behavior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경화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민하영\*

Dep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rofessor : Kim, Kyung-Hwa  
Dept. of Child,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eo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ed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coping behavior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 The subjects were 436 senior students (212 men and 224 women) enrolled in a university in Gyeongbuk Province. Surve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undergraduate students' coping behavior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 work commitment, their will to accept downward employment, sex role identity, grade, sex, perceived SES, and major. Data were analyzed by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and regress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Male students' level of active and supportive coping behavior was higher than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level of evasive coping behavior was lower than female students'. Students who perceive their economic condition as negative were higher in active and supportive coping behavior and lower in evasive coping behavior than the students who perceive their economic condition as positive. (2) The students who were strong in work commitment were higher in active coping behavior, and lower in evasive coping behavior than those who were not. (3) The students who were willing to accept downward employment were higher in active coping behavior than those who were not. (4) The students' coping behavior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sex role identity. (5) Work commitment and sex role identity were influential variables on university students' job-coping behavior.

▲주요어(Key Words) : 취업대처행동(coping behavior concerning job-searching problems), 일애착(work commitment), 하향취업의지(will accept downward employment), 성역할정체감(sex role identity)

## I. 서 론

성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학상급생의 경우 대학

졸업후의 진로 결정은 중요한 발달 과정 중 하나이다. 다수의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기대하고 있고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역할 확립을 통해 성인기로 가는 발달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현재는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을 마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

\* 교신저자 : 민하영 (E-mail : mhycd@hanmail.net)

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채 긴 유예기를 지속하기도 한다.

실업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청년실업률은 7~8%로 실업자수 37만 명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2.1배로 높았다. 대졸자의 취업률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한 가운데 2004년도 4년제 대졸 취업률은 56.4%(교육부, SBS TV 2004. 8. 13) 였고 2005년도에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5.0%로 보도되었다(교육부, 2005. 10. 1. 보도자료). 이러한 대졸자의 취업문제는 대졸자는 더 증가했으되 취업기회가 과거보다 더 감소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 1월초와 2005년 3월말에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초 대학정원 자율화 이후 대졸자 공급이 크게 늘었으나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어드는 바람에 87년 이후 하향취업자가 늘어나고, 이들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국민일보 쿠키 뉴스, 2006. 1. 19).

더우기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의 전공 및 소재에 따라 취업확률이 다르고 서울경기소재 대학의 이공계열이 취업에서 더 유리하고 지방소재대학의 비이공계열 졸업자의 취업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세규, 2003). 이처럼 학교소재지별 취업기회의 불균형, 노동시장의 성별, 전공계열별 불균형은 대졸자의 취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대졸자의 취업 문제에 있어서 경제 및 고용환경과 노동시장 자체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취업성취에 있어서는 취업을 원하는 본인의 특성이나 태도, 취업에 대한 대처행동도 중요하다. 그런데 고학력 취업난 가운데 대학생들은 체계적으로 노동시장 준비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조상희, 2005) 졸업을 앞둔 시기에도 취업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한 학생이 많은 실정(김재원, 200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취업의지는 높지만 취업정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형진, 2003) 대학의 진로지원시스템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유은정, 2004)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고학력 구직자에 대한 연구(유은정, 2004)를 보면 구직자 본인의 진로준비 행동이 선행될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만 진로준비행동이 미흡한 경우 불안전한 노동경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교 재학 중의 일 경험만이 아니라 재학 중 자격증 취득, 교육 훈련 경험 등의 노동시장 준비행동이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규용, 2002). 선행연구들은 취업에 대한 대처행동에 따라 취업성취 및 취업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인 진로준비나 취업대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를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의 취업대처행동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관련된 변인을 고찰하기에 앞서 취업대처행동의 개념은 대처행동의 개념을 고려하여 정의한다. 대처행동(coping behavior)은 문제나 난관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다(송말희 1990:36). 이 연구에서 취업대처행동은 구직자가 취업성공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시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대처행동을 대처방법의 적극성에 따라 접근과 회피의 전략(Ebata & Moos, 1991; Roth & Cohen, 1986)으로 구분한 입장을 수용하여 접근적 취업 대처행동과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으로 구분한다. 접근적 대처행동은 문제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려는 인지적 노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 사회적 지지의 획득,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참여 등을 포함한다. 회피적 대처행동은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문제상황을 회피 또는 무시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자신의 운명에 맡겨버리는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취업난에 대한 대처행동 중에서 접근적 대처행동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하는 것인 반면, 회피적 대처행동은 취업문제를 회피하거나, 현재의 취업난을 그대로 수용하는 행동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진로준비나 취업준비, 노동시장 준비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전공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취업률의 격차가 보고되고 있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욱 취업준비에서 부족한 것(김재원, 2003)으로 지적된다.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전반적인 취업준비의 정도(직업탐색, 여러 직업응시를 위한 영어 및 서류면에서)가 더 낮고(김재원, 2003)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나 진로관련 정보 수집도 남학생이 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상희, 2005).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구직의 요구는 매우 강했으나 준비수준은 비교적 저조(신말식·김경신, 2003)하였고, 여대생이 어학능력이나 컴퓨터 관련 능력 등 기술적인 면에 대한 자신감은 낮고 직업세계 진입의 준비 정도도 낮게 평가되었다(구명숙·홍상욱, 2003). 한편 남녀대학생간에 성취동기에 차이가 없고(이재창·유계식, 1996), 취업포부에 차이가 있는데 취업전략에서만 남학생이 더 점수가 높았다는 결과(이선민, 1994)는 성별에 따른 취업대처의 구체적 차이를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에 따른 취업대처행동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는데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대처행동의 차이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를 파악한다면 성별에 따른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공에 따라서는 이공계열 전공자와 비이공계열 전공자간의 취업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오세규, 2003)과 대학의 전공이 노동시장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민혜리, 2002)이 있다. 전공에 따른 취업률은 전공과 직업세계와의 관련성, 그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및 공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공별 취업 준비 정도나 취업대처행동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전공별 취업률의 차이가 전공에 따른 취업대처행동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서 제도나 시장환경 요인과는 별개로 대학 내에서 전공에 따른 취업지도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의 현실적인 경제적 곤란은 취업에 대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업대처행동과 관련해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 본인은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을 통해 자신의 교육과 직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를 보면 아버지 학력과 직업계층에 따라 대학생의 노동시장 준비행동이 달라 부의 학력이나 직업계층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노동시장 준비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노동시장 준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조상희, 2005)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의 학력이 높은 대학생들은 비정규 교육활동이나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같은 소극적 취업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재학 중의 일경험과 같은 적극적 취업준비행동은 더 적게 경험하였다. 부의 학력이나 직업계층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련되므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구에 의하면 가족들은 대학을 마친 구직자의 취업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심리적 부담을 주었고 직접적인 진로의사 결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다(유은정, 2004).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학생자녀의 취업에 대한 가족의 관심과 염려 또는 압력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가족의 관심이나 압력은 대학생 본인의 가정경제에 대한 지각 및 취업대처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의 관련변인으로 성별이나 전공, 가정경제에 대한 지각과 같은 외적 변인을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취업과 비취업, 안정적인 취업과 불안정한 취업의 차이를 가져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또는 개인내적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취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직접적 대처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구직자 본인의 일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핵심요소이므로 일에 대한 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구직자 본인이 취업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노동시장 여

건이 양호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특성과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조상희, 2005)가 있을 때, 즉 일에 대한 애착과 헌신이 있을 때 좋은 성과를 나올 수 있을 것이므로 취업대처행동에서 일에 대한 애착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대학졸업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추어 일자리를 찾으라'라는 하향취업에 대한 권고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향취업이란 '학력과 불일치하는 노동경험'(정형옥, 1991)이다. 즉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수준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사업장의 규모나 노동조건, 고용형태, 업무 등 노동조건 면에서 자신의 고학력자로서의 학력가치(정형옥, 1991)와 불일치를 경험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성이나 인문계 졸업자, 지방대학 졸업자 등에게는 이러한 하향취업이 하나의 취업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하향취업은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생산성을 저하(이수봉, 1991)시킬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인적자본의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다. 현재도 일자의 축소로 청년층 내부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하향취업 경향이 가속화(유은정, 2004)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에서도 취업준비생들은 가상의 취업시점이 길어짐에 따라 직장 기대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석, 2004). 그렇다면 취업기회에 대한 판단에 따라 하향취업의 수용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하향취업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실질적인 취업대처행동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처행동과 같은 개인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의 하나로 성역할 정체감을 들 수 있다. 성역할이란 남성과 여성에 따라 각각 달리 기대되는 행동양식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할, 행동양식, 특성을 동일시하여 형성된 성격 및 행동특성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과 상관이 있으며(안권순·한건환, 2002) 남녀대학생의 성역할관과 취업행동은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다. 근대적인 성역할관을 가진 여학생이 취업에서도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김형진, 2003)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양성성인 대학생들이 다른 유형들의 대학생들보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았고(안권순·한건환, 2002), 양성적, 남성적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이 미분화 정체감이나 여성적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미, 2002).

이처럼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이나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이 성취욕구나 취업행동,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 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므로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때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높은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취업에 대한 대처에서 요구되는 성격특성은 적극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경쟁적이고 주도적이며 독립적인 특성으로 표현되는 남성적 특성과 많은 부분이 공유된다. 능동적, 객관적, 공격적, 직접적, 지배적, 비정서적, 유능함 등과 같은 도구적 특성은 현실세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이재창·유계식, 1996)로 지적된다. 그러므로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대처행동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각기 대처행동에 대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도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취업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취업동기와 높은 취업의식을 가지고 취업에 대처할 것이다. 취업을 위한 계획이나 노력은 대학생들의 배경변인 및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곧 취업의 성공과 관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전공, 취업을 요구하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설정하고 개인내적 변인으로 일에 대한 애착, 하향취업의지, 성역할 정체감을 설정하여 이를 변인 따라 취업대처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와 결정을 돋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대학생의 성별, 전공, 가정의 경제적 상황지각)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개인내적 변인(일에 대한 애착, 하향취업의지,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개인내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조사 대상은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4학년의 남녀 대학생 436명이다. 조사대상 중 남학생은 212명

(48.6%)이며 여학생은 224명(51.4%)이고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252명(57.8%), 자연공과계열 학생이 142명(32.6%), 예능계열 학생이 30명(6.9%)이었다(12명(2.8%)은 결측치였다). 응답자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 상황은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꼭 취업을 해야 할 입장'인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재분류하였는데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상황이 나쁘다'고 지각한 응답자가 223명(52.1%), '그저 그렇다'고 지각한 응답자가 120명(28.0%), '상황이 좋다'고 지각한 응답자가 85명(19.9%)이었다.

### 2. 연구척도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 취업대처행동, 일에 대한 애착, 하향취업의지, 성역할 정체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취업대처행동

취업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처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로스와 코헨(Roth & Cohen, 1986)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민하영(1999)의 대처행동 측정도구와, 블로(Blau, 1994)가 개발한 취업탐색행동 척도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들이 12문항의 취업난에 대한 대처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취업대처행동은 접근적 취업대처행동과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접근적 대처행동은 적극적(3문항)이고 정보추구적인 취업대처행동(5문항)의 8문항으로 측정하였고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의 응답점수는 8점부터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표준편차)은 28.26(4.54)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0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의 응답점수는 4점부터 2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2로 나타났다. 최소-최대값 4~19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표준편차)은 8.99(2.81)로 나타났다.

#### 2) 일에 대한 애착

일에 대한 애착이란 보수를 지불하는 노동에 종사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직업의 중요성, 일에 대한 흥미 등을 지칭한다(Jackson, & Stafford, 1983). 척도는 Rowley와 Feather(1987)가 제작한 일부문항을 번안해 사용하였으며 구성된 척도의 내용 타당도는 3명의

노동 관련 전공자에 의해 검증되었다. 5문항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애착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에 대한 애착의 응답점수는 5점부터 2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최소-최대값 11-25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표준편차)은 21.55(3.21)로 나타났다.

### 3) 하향취업의지

하향취업의지란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학력가치와 불일치하는 취업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가진 정도를 말하며 척도는 Shamir(1986)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문항으로 이루어진 하향취업의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하향취업의지의 응답점수는 4점부터 2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향취업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최소-최대값 4-20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표준편차)은 13.52(2.98)로 나타났다.

### 4)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정체감(Sex-Role Identity)을 측정하기 위해서 Bem의 성역할측정도구(Bem Sex Role Inventory BSRI)를 허선자(1992)가 번안하여 남성적 척도 7문항, 여성적 척도 7문항, 그리고 채점하지 않은 중성척도 7문항으로 구성한 후 총 21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남성성 7문항과 여성성 7문항으로 이루어진 성역할 정체

감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의 응답점수는 7점부터 3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남성성, 여성성 각각 .79, .71로 나타났다. 남성성과 여성성 각각의 최소-최대값 7-35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표준편차)은 23.44(4.05)와 25.50(3.2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1학기 강의 기말 시험이 시작되기 전인 강의 시작 13주에서 14주 사이에 전공과목 강의 시간에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은 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질문지는 응답장소에서 수거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2006학년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가 아닌 경우와 취업이 이미 확정된 경우의 질문지는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 일원변량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대처행동  
대학생의 성별, 전공, 거·정의 경제적 상황지각에 따라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

변 인	변인 구분(사례수)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평균(SD)	회피적 취업대처행동 평균(SD)
성 별	남학생(211)	28.92(4.25)	8.59(2.91)
	여학생(220)	27.63(4.72)	9.37(2.66)
	t값	2.98**	-2.90**
전 공 계 열	인문사회(250)	28.15(4.68)	8.99(2.80)
	자연공과(140)	28.51(4.46)	8.96(2.84)
	예능(30)	28.50(4.21)	8.93(2.66)
경제적 상 황	F값(df)	.31(2,417)	.02(2,416)
	좋음(220)	27.05(4.26) <sup>b</sup>	9.93(3.11) <sup>a</sup>
	중간(119)	28.26(4.63) <sup>a</sup>	9.14(2.68) <sup>ab</sup>
	나쁨(85)	28.79(4.09) <sup>a</sup>	8.50(2.63) <sup>b</sup>
	F값(df)	4.59(2,421)*	8.58(2,421)***

주: 접근적,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의 각 변인간 사례수는 결측치에 의해 약간씩 차이남.

주: \*p <.05, \*\*p <.01, \*\*\*p <.001

주: Scheffe' 검증에 따라 a, b 동일한 문자간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

취업대처행동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표 1> 성별 및 가정의 경제적 상황 지각에 따라 취업대처행동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전공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t_{334}=2.98$ ,  $p<01$ )과 회피적 취업대처행동( $t_{334}=-2.90$ ,  $p<01$ )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더 높았으며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더 낮았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에 졸업후 반드시 취업해야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F_{2,421}=4.59$ ,  $p<05$ )이 높았으며 회피적 취업대처행동( $F_{2,421}=8.58$ ,  $p<001$ )은 낮았다.

사후검증결과에 의하면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좋게 지각하는 대학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경제적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더 높았다.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좋게 지각하는 대학생 집단과 나쁘게 지각하는 대학생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경제적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각하는 대학생들의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이 더 높았다.

#### <연구문제 2> 개인내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대처 행동

개인내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일에 대한 애착과 하향취업의지를 상하위 1/3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한

편 성역할 정체감은 Bem(1974)의 Sex-Role Inventory의 BSRI 채점방법에 의거한 중앙치 반분법에 따라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일에 대한 애착 수준에 따라 취업대처행동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일수록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F_{2,427}=14.27$ ,  $p<001$ )이 높았고 회피적 취업대처행동( $F_{2,426}=9.11$ ,  $p<001$ )은 낮았다. 구체적으로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은 일에 대한 애착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더 높았으며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이 의미있게 더 낮았다.

하향취업의지에 따라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F_{2,427}=3.09$ ,  $p<05$ )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향취업의지가 높은 집단은 하향취업의지가 낮은 집단에 비해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의미있게 더 높았다. 즉 자신의 학력이나 기대 수준보다 낮은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보다 접근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F_{2,420}=12.63$ ,  $p<001$ )과 회피적( $F_{2,419}=3.17$ ,  $p<05$ ) 취업대처행동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집단은 미분화된 정체감을 가진 집단에 비해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높았고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더 낮았다. 추후분석결과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집단은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 상태의 대학생에 비해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의미있게 더 높았다.

<표 2> 개인내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의 차이

변 인	변인 구분(사례수)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평균(SD)	회피적 취업대처행동 평균(SD)
일 애착 수준	높음(157)	29.70(4.81) <sup>a</sup>	8.36(3.04) <sup>a</sup>
	중간(128)	27.89(3.84) <sup>b</sup>	8.93(2.75) <sup>ab</sup>
	낮음(149)	27.05(4.40) <sup>b</sup>	9.71(2.46) <sup>b</sup>
하향취업의지수준	F값(df)	14.27(2,427)***	9.11(2,426)***
	높음(133)	29.02(4.94) <sup>a</sup>	8.71(2.91)
	중간(158)	28.08(4.09) <sup>ab</sup>	9.31(2.88)
성역할 정체감 유형	낮음(143)	27.70(4.54) <sup>b</sup>	8.94(2.60)
	F값(df)	3.09(2,427)*	1.71(2,426)
	양성성집단(133)	30.18(4.34) <sup>a</sup>	8.52(3.19)
	남성성집단(81)	27.85(5.38) <sup>b</sup>	8.73(2.68)
	여성성집단(85)	27.69(4.26) <sup>b</sup>	9.53(2.67)
	미분화집단(129)	27.01(3.70) <sup>b</sup>	9.33(2.42)
	F값(df)	12.63(3,420)***	3.17(3,419)*

주: \* $p <.05$ , \*\* $p <.01$ , \*\*\* $p <.001$

주: Scheffe' 검증에 따라 a, b 동일한 문자간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 없음

**<연구문제 3> 개인내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대처 행동의 설명력**

개인내적 변인에 따른 취업대처행동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에 대한 애착, 하향취업의지, 남성적,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sup>\*</sup> 변인을 포함하여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회피적 대처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3> 남자대학생의 경우 일에 대한 애착( $\beta=.28$ ,  $p<.001$ )과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 $\beta=.25$ ,  $p<.001$ )은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을 12%까지 설명하였다. 남자대학생의 회피적 대처행동은 일에 대한 애착( $\beta=-.28$ ,  $p<.001$ )과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 $\beta=-.25$ ,  $p<.001$ )에 의해 의미있게 설명되었고 설명력은  $R^2=.11$ 로 나타났다. 하향취업의지나 여성적 정체감은 남자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없었다.

여자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 중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은 일에 대한 애착( $\beta=.20$ ,  $p<.01$ ), 하향취업의지( $\beta=.15$ ,  $p<.05$ ),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 $\beta=.29$ ,  $p<.001$ ),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 $\beta=.17$ ,  $p<.01$ )에 의하여 의미있게 설명되었고 설명력은 22%에 이르렀다( $R^2=.22$ ). 일에 대한 애착과 하향취업의지가 높으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보추구적인 자세로 취업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대학생의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일에 대한 애착( $\beta=-.18$ ,  $p<.05$ )과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 $\beta=-.14$ ,  $p<.05$ )에 의하여 의미있게 설명되었고 설명력은 6%였다( $R^2=.06$ ). 일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이 낮을수록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이 높았는데 하향취업의지나 여성성에 따라서는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에 대한 애착과 남성성은 남자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과 여자대학생의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을 설명하는 의미있는 변인이었으나 남자대학생에게서 하향취업의지와 여성성은 취업대처행동을 설명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대학생의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은 일에 대한 애착과 남성성 뿐 아니라 하향취업의지와 여성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1)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적,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 점수를 바탕으로 유형화한 집단이다.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성, 여성성 수준에 따른 취업대처행동의 설명력을 비교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직접 남성적,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 점수를 사용하였다.

**<표 3> 일 애착, 하향취업의지, 남성성, 여성성 수준에 따른 남자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

변인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회피적 취업대처행동	
	B	$\beta$	B	$\beta$
상수	13.79		15.28	
일 애착	.38	.28***	-.26	-.28***
하향취업	.06	.05	.04	.05
남성성	.27	.25***	-.18	-.25***
여성성	-.02	-.02	.11	.12
F(4 200)	8.77***		7.32***	
$R^2$		.12		.11

주: \* $p <.05$ , \*\* $p <.01$ , \*\*\* $p <.001$

**<표 4> 일 애착, 하향취업의지, 남성성, 여성성 수준에 따른 여자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

변인	접근적 취업대처행동		회피적 취업대처행동	
	B	$\beta$	B	$\beta$
상수	3.64		15.75	
일 애착	.29	.20**	-.15	-.18*
하향취업	.28	.15*	-.10	-.10
남성성	.34	.29***	-.09	-.14*
여성성	.25	.17**	.01	.01
F(4 211)	15.88***		4.14**	
$R^2$		.22		.06

주: \* $p <.05$ , \*\* $p <.01$ , \*\*\* $p <.001$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지방 대학의 남여 대학생 436명을 대상으로 취업대처행동이 대학생들의 개인적 변인이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탐색하였다.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은 성별 및 가정의 경제적 상황 지각에 따라 다르고 전공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은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더 높고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더 낮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기에 졸업후 반드시 취업해야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높고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이 낮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취업에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조상희,

2005), 준비정도가 더 나으며(김재원, 2003), 취업전략이 더 높다(이선민, 1994)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여대생들의 경우 준비상황 등에서 직업을 정했으나 합리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아예 장래 직업을 정하지 않은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매우 높다(구명숙·홍상욱, 2003)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관된다.

이처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진로를 늦게 결정하고 취업준비나 취업전략이 취약하다는 점은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미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확률이 높고(오세규, 2003), 여대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더 크다(신현균·장재윤, 2003)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에서는 여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 강화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 학교내 취업지원체계는 남성중심적으로 작동하며 여학생을 위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고 프로그램 내에서도 여성을 고려한 내용은 거의 없다(김지영, 1999). 그렇지만 남여대학생간에 취업포부(이선민, 1994)나 성취동기에 차이가 없으므로(이재창·유계식, 1996) 대학측에서는 성평등한 진로교육과 여학생의 취업전략 및 직업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여학생의 취업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적극적으로 취업대처행동을 한다는 점은 자의든 타의든 취업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가정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압박감이 취업을 위한 정보탐색의 기간, 취업에 관한 의사결정과 선택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가정경제수준이 불안정하고 진로준비행동이 미흡한 청년층은 조급하게 직업을 결정하면서 불안전한 노동경력을 형성(유은정, 200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들이 초기에 진로준비에 들어가도록 이끌 필요가 있고 동시에 고용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선택과 결정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에 대한 애착 수준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취업대처행동이 다르며 하향취업의지에 따라 취업대처행동은 부분적으로 다르다.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높고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이 낮으며,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은 다른 대학생에 비해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높고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이 더 낮다. 특히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은 다른 대학생에 비해 적극적이고 정보추구적인 취업대처행동을 한다. 하향취업의지가 높은 집단은 하향취업의지가 낮은 집단에 비

해 적극적 취업대처행동이 더 높다.

일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정보를 추구하는 취업대처행동이 높은 것은 일에 대한 애착이 직업의 중요성 및 일에 대한 홍미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유보수 노동에 종사하려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취업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드러내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원하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일에 대한 애착이 의미있다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남녀 대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확고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때 일에 대한 애착이란 직업의 의미에 대한 이해, 일 자체에 대한 정보와 이해, 자신의 선호나 역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므로 대학생에 대한 진로 및 취업지도에서는 자기이해를 위한 내용과 직업세계에 대한 사실적 정보와 직접 경험의 기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하향취업의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정보추구적인 취업대처행동이 높았던 것은 하향취업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질수록 취업관련 정보를 탐색하는데 더 집중하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을 나타낸다. 연구에 의하면 취업준비생들은 가상의 취업시점이 길어짐에 따라 직장 기대수준을 낮추었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 그러하였다(박혜석, 2004). 그러나 하향취업이란 구직자 자신의 학력 및 자신이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취업과 불일치하는 취업이라는 점에서 고용의 근본적 문제를 내재한 취업이며 긍정적 고용경력 축적과 거리가 먼 취업이다. 연구에 의하면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진입 초기의 하향취업은 부정적인 고용경력을 형성하게 한다(정형우, 1999). 하향취업은 찾은 이직을 불리오고, 찾은 이직은 나이와 경력의 불일치 현상을 가져온다. 그 결과 하향취업한 고학력 여성들은 높은 이직률이라는 부정적인 고용경력을 갖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더욱 주변화 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다(정형우, 1999). 다른 연구에서도 노동시장의 열악한 상황은 고학력 청년구직자들이 불안전한 첫 일자리로 진입을 하게 했고 그와 같은 성급한 취업으로 일부는 찾은 노동이동과 그로 인한 소모적인 노동경력을 형성하였다(유은정, 2004). 즉 하향취업은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따라서 하향취업의지가 높을수록 적극적 취업대처행동이 높지만 지속적인 경력발달의 맥락에서 볼 때 하향취업의지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재고를 요한다. 대학에서의 취업지도 프로그램은 대학생 구직자들이 긍정적 고용경력 형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지양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즉, 불가피하게 하향취업을 선택하거나 비현실적 진로기대로 취업을 장기유예하지 않도록 대학생 자신의 취업목표

나 구직의사를 명료히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이 다른 유형의 성 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에 비해 적극적 취업대처행동이 의미있게 높았던 결과도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대체로 지지된다.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대학생들보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았고(안권순·한건환, 2002), 양성적, 남성적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이 미분화 정체감이나 여성적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보다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아미, 2002) 근대적인 성역할관을 가진 여학생이 취업에서 도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김형진, 2003). 이처럼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이나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이 성취욕구나 취업행동,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 등과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은 남성적 여성적 특성의 충분한 발달이 취업 대처에서 의미있게 작용할 수 있을 보여준다. 전통적 성역할 기대가 개인의 성장을 제한하는 반면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이 긍정적 자존감이나 적응, 행동의 유연성,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더 갖추게 하므로 진로 및 취업지도에 있어서도 대학생들의 성역할 정체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성역할 정체감의 적절한 발달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접근적 취업대처행동과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일에 대한 애착과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되는데 관련변인의 설명력은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에게 다르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일에 대한 애착과 남성성이 남자대학생의 적극적 취업대처행동과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을 설명하는 반면 여성성은 남자대학생의 적극적 취업대처행동이나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의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은 남자대학생의 경우와 달리 일에 대한 애착과 남성성, 하향취업의지, 여성성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그리고 여학생의 회피적 취업대처행동은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애착과 남성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되었고 여성성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결과는 연구문제 2의 분석에서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대학생들에 비해 접근적 취업대처행동이 의미있게 높았던 결과와 달리 이 결과는 양성성이 남여의 행동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성과 접근적 취업대처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남성적 특성은 능동적, 객관적, 공격적, 직접적, 지배적, 비정서적, 유능함 등과 같이 현실세계를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이재창·유재식, 1996)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취업과 취업스트레스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는 행동 자체가 적극성과 활동성, 경쟁성, 주도성 등을 바탕으로 하기에 남성성 점수가 높을수록 적극적이고 정보추구적인 취업대처행동을 높고 회피적 취업 대처행동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서 남성적 특성이 더 의미있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남자대학생의 경우와 달리 여자대학생은 남성성도 높고 여성성도 높은 양성적 태도를 가질 수록 그리고 하향취업에 대한 권고를 수용할수록 적극적이고 정보추구적인 태도로 취업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대학생이나 인문계열 전공자 등과 같이 취업이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집단일수록 하향취업에 대한 권고가 하나의 취업전략으로 제시되었던 현실을 여자대학생들이 수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취업성취와 연결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정보추구적인 취업대처행동이 남녀대학생에 따라 다른 변인들에 의해 설명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남녀대학생간에 취업대처행동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에 대한 이착이나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은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을 이해하는데서 유용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진로 및 취업지도 과정은 아동청소년기부터 점차적으로 시작되어야 하겠지만 대학시기에도 여전히 진로준비행동이 미흡한 대학생들이 많다. 이 연구는 대학에서의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주었고 실질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직업과 자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도록 지원해야 함을 보여주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단,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한 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었고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관련된 변인으로 대학생의 개인적 변인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대학의 소재지별 취업획률이나 여건이 다르고 대학별로 취업정보보유량(김은정, 2004)과 제공수준,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실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가정 및 부모관련 요인, 학교관련 요인, 사회적 요인도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인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6년 03월 13일
- 심사일 : 2006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5월 09일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05). 2005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발표. 2005. 10. 1.
- 교육부. SBS TV(2004. 8. 13) 보도.
- 국민일보 쿠키 뉴스(2006. 1. 19).
- 구명숙, 홍상욱(2003). 여대생의 취업의식 및 취업준비도 실태조사. *여성연구논집*, 14, 5-36.
- 김재원(2003).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행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6(1), 211-241.
- 김지영(1999). 대학내 취업지원체계의 여성배제구조.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진(2003). 대학생의 성역할관이 취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혜리(2002).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3), 133-149.
- 박혜석(2004). 취업준비생의 성별, 취업준비기간과 직장기대수준과의 관계.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8.
- 신말식·김경신(2003). 여대생들의 취업의식 실태조사 및 성평등적 관점의 취업 증진 방안.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183-199.
- 신현균·장재윤(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안권순·한건환(2002). 청년기의 개인 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02.
- 오세규(2003). 대졸자의 취업확률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정(2004).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고학력자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용(2002).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 전문대 대학졸업생 조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선민(1994). 대학생의 취업포부와 취업전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유계식(1996). 성취동기,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유형 간의 관련분석과 이를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13, 111-145.

- 정형옥(1999). 고학력 여성의 '하향취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초록.
- 조아미(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조상희(2005). 대학생의 노동시장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 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lau, G.(1994). Testing a Two-Dimension Measure of Job Search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 288-312.
- Ebata, A.T. & Moos, R.H.(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 and healthy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Jackson, P.R. & E.M. Stafford(1983).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People: The Moderating Role of Employment Commit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3), 525-535.
- Roth, S. & L.J. Cohen(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7), 813-819.
- Rowley, K.M. & N.T. Feather(1987). The Impact of Employment in Relation to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 323-332.
- Shamir, B.(1986). Self-Esteem and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1), 61-72.